

# 『史記英選』의 編纂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of the *Sagi-youngseon*

尹 炫 晶 (Yoon, Hyun Joung)\*

## ◁ 목 차 ▷

- |         |              |
|---------|--------------|
| 1. 序 論  | 4.1 구성       |
| 2. 편찬배경 | 4.2 수록 내용 분석 |
| 3. 편찬목적 | 5. 結 論       |
| 4. 편찬분석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의 대상인 『史記英選』은 통독하기에 양이 많은 司馬遷의 『史記』를 효율적으로 익히기 위해, 문장의 법도가 되는 26편을 선별하여 편찬 및 간행한 정조조 편찬 選本 중 하나이다. 『사기영선』에 수록된 26편을 사마천의 『사기』에 수록된 내용과 그 순서 및 편명 차이를 분석한 뒤, 『사기영선』이 선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사기』 대상 문장 선본과 수록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을 규명하였다. 첫째, 사마천의 『사기』 저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둘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면서, 정조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셋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은 아니지만, 정조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더라도, 정조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은 미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사기영선』의 편찬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장의 법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조의 정치관과 주관적인 관점, 그리고 주자성리학을 존중하는 정조의 학문관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사기영선』은 단순히 정조가 선별한 문장일 뿐만이 아니라, 정조의 학문관과 정치관이 집약된 御定書이다. 본 연구는 『사기영선』의 수록 내용을 다른 『사기』 대상 선본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상의 담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要語: 『史記英選』, 正祖, 選本, 御定書, 文體反正, 『史記』, 書誌學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kawkdydy@naver.com)

접수일: 2016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Sagi-youngseon*, the 26 selections of *Sagi*, is the main issue of this research. Because *Sagi*, the historical publication of Samachoen, is too long to read aloud and hard to study, King Jeongjo selected 26 pieces from it and categorized them. In this research, *Sagi-youngseon* was compared with the original *Sagi*, especially for the order and title of the pieces. Then, the criteria of the collection was discovered through comparing it with other writing piece collections and publications. First, King Jeongjo selected the most special pieces from *Sagi* that contained main objectives. Second, he also selected the classics with his favorite characters among the 130 pieces of *Sagi*. Third, he selected the pieces with his beloved characters although those were not the masterpieces of *Sagi*. However, King Jeongjo did not choose all masterpieces for *Sagi-youngseon* if the story had main characters that he thought negatively.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hidden intention of the compilation of *Sagi-Youngseon* was discovered as well as the main objectives of the selections. He tried to put his political ideology and his respect to Zhu Xi's Neo-confucianism into the *Sagi-youngseon*. This research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s research method has an academic importance which compares *Sagi-Youngseon* writings pieces and other kinds of writing compilation.

Key words: *Sagi-Youngseon*, king Jeongjo, Anthology, king-edited book, Munchepanjung, *Sagi*

## 1. 序 論

사마천의 『史記』는 武帝시기(기원전 141 - 기원전 87)의 太史令 司馬遷(BC 145 - ?)이 五帝부터 漢武帝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중국 최초의 紀傳體의 通史이다. 家學의 계승, 李陵 사건으로 인한 發憤, 史官으로서의 책무 등 『사기』 저술에 얽힌 극적인 이야기들은 『사기』의 인물을 중시하는 역사 서술 방식, 현장 탐사를 통한 실제 자료 수집 등과 같은 중요성과 더불어 『사기』를 名作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일조하였다.

단순한 역사서로 인식되던 『사기』는 中唐代에 이르러 韓愈에 의해 재평가를 받은 이후 宋代에 이르러 그 문장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明代에는 擬古派의 창작 논리에 의해 史書에서 문장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1577년 간행된 陵稚隆의 『史記評林』은 『사기』 문장에 대한 文辭, 편장 구성, 行문 기교 같은 수사학적 품평 주석을 모은 문헌으로, 크게 유행하여 『사기』를 문장의 전범 텍스트로 대중화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조선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사기』, 『한서』, 『後漢書』가 ‘三史’로 일컬어지며 대표적인 역사서 중 하나로 인식되다가, 15세기부터 점차 변화하고, 16세기에 이르면 중국의 명대 의고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秦漢古文派에 의해 완전히 문장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기평림』이 유입되어 조선에서 간행된 일 또한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조선에서의 『사기』 간행 경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選本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사기』는 전체 130권으로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문장 전범서로 참고하기 위해 통독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조선본 『사기평림』은 품평 주석이 삭제되어 있고, 『사기평림』을 가려 뽑은 『史記纂』이 유입되어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그 『사기찬』을 조선에서 다시 가려 뽑아 『史纂』이 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로도 다양한 문인들이 『사기』를 선별하여 엮은 문헌이 다수 편찬되었는데, 그 중 『史記英選』은 조선의 제22대 국왕 정조가 직접 내용을 선별하여 엮은 선본으로, 조선에서 편찬된 『사기』의

선본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힌 문헌이다.

『사기영선』을 비롯한 『사기』선본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조선 시대 『사기』와 『사기』 관련 문헌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수입되는 과정과, 이후 조선후기에 나타난 『사기』 열독 현상을 다룬 이성규의 논저,<sup>1)</sup> 조선후기 『사기』 선집의 성행과 원인은 문인들이 『사기』를 전범 텍스트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며, 그 근거로 『사기』 속에 나타난 수사학적 장치와 그에 따른 문인들의 비평을 제시한 이현호의 논저<sup>2)</sup> 등 조선후기 문인들이 『사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때, 『사기영선』은 『사기』를 문장전범 텍스트로 이해한 선집의 精髓로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사기영선』의 편찬 과정과 제간본에 대해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제간본의 간행 선후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강혜선의 논고<sup>3)</sup>와 『사기영선』이 간행 및 재편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 이전 연구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본을 제공하는 데에 일조한 김소희의 연구<sup>4)</sup>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사기영선』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조사를 개괄적으로 언급하거나 제간본의 선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혹은 『사기』 텍스트의 수용과 변주 등 광범위한 주제의 일부로써 『사기영선』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연구 성과만으로 선본으로서의 『사기영선』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사기영선』이 선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사기영선』의 편찬 의도와 편찬 과정에 관한 서지학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지닌다.

첫째, 정조가 『사기영선』을 편찬한 목적을 규명한다.

둘째, 『사기영선』의 선별 기준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사기영선』의 성격을 밝힌다.

1)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호(진단학회, 1992).

2)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3) 강혜선, “정조가 가려 뽑은 『史記英選』,” 『문헌과해석』 5호(태학사, 1998).

4) 김소희, “『史記英選』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40호(한국서지학회, 2012).

## 2. 편찬배경

조선시대 문예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정조는 뛰어난 학자적 자질<sup>5)</sup>로 많은 문헌을 편찬하였는데,<sup>6)</sup> 이때 편찬된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적 특징 중 하나로 선본<sup>7)</sup>의 편찬을 꼽을 수 있다.<sup>8)</sup> 실제로 정조가 직접 저술한 御製와 신료들에게 지시하여 편찬 및 간행한 문헌에 대한 해제집인 『羣書標記』 수록 문헌 총 155종 3,991권 중 선본은 18종 738권으로 『군서표기』 수록 문헌 중 18.49%(권수 기준)를 차지한다.

그 원인은 정조의 학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조는 학문의 방법으로서 抄錄하는 공부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문헌을 섭렵하고 그 요체를 체득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 문헌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초록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학문의 방법이며, 그 결과를 보기 편하게 엮어 가까이 두고서 항시 읽을 수 있는 선본은, 정조가 지향하는 학문의 방법에 알맞은 도구였을 것이다. 초록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정조의 隨想錄인 『日得錄』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하교하기를, “抄錄하는 작업은 학문에 큰 도움이 된다. …(중략)… 나는 일찍부터 초록하는 공부를 가장 좋아하여 직접 써서 編을 이룬 것이 수십 권에 이르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효과를 거둔 곳이 상당히 많으니, 범범히 읽어 넘어가

5)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附錄續篇, 『正祖大王 遷陵誌文』.

“世孫絕無一毫走作意。禁苑花發，非從予，未嘗一往遊賞，日靜坐讀書。此豈勉強可爲 即其天性然也。”

6) 정조의 御製書와 命撰書 목록집인 『군서표기』에 실린 서적은 총 155종 3,991권이다.  
7) 선본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① 「명사」 시험이나 심사에 든 사람을 뽑는 일. ② 「의존명사」 여럿 가운데 뽑힌 횡수나 차례를 세는 단위.의 뜻을 가진 ‘選’과 ‘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책 또는 판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의 뜻을 가진 ‘本’을 합쳐 ‘가려 뽑은 책’이라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유사어로 選集, 文選 등의 용어가 존재하는데, ‘선본’보다는 ‘선집’이 더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지만, ‘선집’의 경우 시문 선본과 유사하게 문학 작품을 총망라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본고에서는 ‘선본’의 용어를 채택하였다.  
8) 김문식은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에서 정조대의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적 특징을 1) 정본의 편찬, 2) 선본의 편찬, 3) 주석 및 참고자료 편찬으로 분석하였다.

는 것과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였다.<sup>9)</sup>

상이 이르기를, “나는 평소 책을 볼 때에 반드시 鈔錄하여 모으는데, 이는 事實의 긴요한 대목을 파악하고 文詞의 精髓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서, 이 또한 博文約禮의 공부이다. …(중략)… 근세에 벼슬아치의 자제들 중에 한 질의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 보지 못했으니, 누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공부를 하려고 들겠는가.” 하였다.<sup>10)</sup>

상이 이르기를, “책은 반드시 읽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하고, 책을 볼 때는 반드시 鈔錄하여야 하니, 그렇게 해야 오래도록 受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sup>11)</sup>

이상의 기록에서 정조는 초록하는 공부를 거쳐야 학문의 참된 뜻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고, 요점을 파악하면서 독서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정조는 초록 작업 시에 여러 문신들과 유생들에게 널리 견해를 묻고, 그 문책 내용을 기록하여 학문의 수단으로서 초록 작업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선본은 이러한 초록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가치를 지니며, 정조의 학문적 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서명에 ‘選’이라는 글자를 붙이거나, 10의 배수에 맞추어 글을 뽑아 엮은 문헌은 『八子百選』, 『朱書百選』, 『史記英選』, 『陸奏約選』, 『五經百篇』, 『杜陸千選』이 있다. 이 문헌들에 대한 정조의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弘齋全書』卷163, 日得錄 3 文學.

“教曰. 鈔集之工. 大有助於學間. 張橫渠之妙契疾書. 尙矣毋論. 而至若我朝先正諸人. 皆從鈔集上著力. 予嘗最好鈔集工夫. 而手寫成編者. 殆至屢數十卷. 間多有以此收效處. 其視泛然看讀. 不可同日而語矣.”

10) 『弘齋全書』卷164, 日得錄 4 文學.

“予平日看書則必鈔輯. 蓋所以提事實之緊要. 掇文詞之精英. 此亦博文約禮之工也. 自春邸時藏之巾箱者. 不知爲幾卷帙. 其中朱子大全語類. 陸宣公奏議二書. 近始脫藁編印矣. 近世搢紳子弟. 未嘗聞俯首讀一帙書. 誰欲下此勤劬之工夫乎.”

11) 『弘齋全書』卷165, 日得錄 5 文學.

“讀書必成誦. 看書必鈔錄. 然後可以耐久受用.”

내가 三餘 때마다 한 帙의 책을 읽어서 이것을 해마다 상례로 삼았고, 손수 여러 서책을 抄選하여 반드시 中外에 간행 반포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文風을 진흥시키고 俗習을 바로잡으려는 苦心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책을 반포하고 나서는 몸소 먼저 이를 誦習하여 한 세상의 표준이 되었다.<sup>12)</sup>

즉, 이 6종의 문헌은 정조의 대표적 선본으로, 고문과 주자학, 역사서, 奏議, 경학, 시문학이라는 각 분야의 정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문풍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 하에 편찬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 문헌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일종의 연속 간행물로서 차례로 간행되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이들 문헌의 간행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正祖親撰 選本の 刊行 時期

연도		내용
1781년	정조 5년	『八子百選』 간행
1791년	정조 15년	珍山辛亥事件
1794년	정조 18년	『朱書百選』 간행
1795년	정조 19년	『史記英選』 간행
1797년	정조 21년	『陸奏約選』 간행
1798년	정조 22년	『五經百篇』 간행
1799년	정조 23년	『杜陸千選』 간행
1800년	정조 24년	薨

이상의 <표 1>을 살펴보면, 첫 선본인 『팔자백선』을 제외한 5종의 선본들은 대개 1년 간격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위 초, 정조는 초기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秦漢派의 擬古文에 대해 唐宋文을 正文으로 제시하고자 1781년 『팔자백선』을 간행<sup>13)</sup>하였는데, 이 문헌이 문인들에게 효율적인 독본으로 받아들여져

12) 『弘齋全書』 卷7, 詩 3.

“予於三餘，輒課一帙之書。歲以爲常。而手選諸書。必印頒中外。蓋亦振文風矯俗習之苦心也。書旣頒，躬先誦習。爲一世準。”

13) 이 시기의 초기 문체반정은 흔히 알려진 정조의 문체반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윤현정,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대동문화연구』 제93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243-283).

크게 성행하면서, 당송과의 정착에 일조하여 조선후기 문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패관소품문 등이 계속해서 성행하면서, 문장의 도가 올바르게 서지 않는 것을 개탄한 정조는, 1791년 진산신해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체반정을 주도하게 되는데, 문풍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0여 년 전 『팔자백선』의 간행 이후 직접 그 효과를 목격했던 선본 간행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 6종의 문헌이 연속 간행물의 성격을 갖는 근거로 각 문헌이 요약하고 있는 대상들을 들 수 있다. 당송팔대가의 문장과 주자의 문장, 사마천의 『사기』, 육선공의 주의, 유가의 기본 경학서인 오경, 두보와 육유의 시가 바로 각 선본들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정조가 문장을 배우는 데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라고 여긴 문헌들이다. 이하의 인용문은 이러한 정조의 문장관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일찍이 여러 각신들에게 하교하기를, “문장에는 道가 있고 術이 있는바, 도는 바르지 않아서는 안 되고 술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문장을 배우는 자는 웅당 六經을 宗主로 하고 子·史를 羽翼으로 하여 위아래를 포괄하고 지금과 옛날을 널리 통달하되, 마지막에는 朱子の 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라야 그 내용이 醇正하여 道術에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곳이 없게 된다. 더구나 문장의 도는 큰 것이어서 治敎의 쇠퇴함과 융성함, 풍속의 순후함과 각박함, 인심의 바름과 거짓됨을 이 문장의 높고 낮음, 오르고 내림을 보아서 대부분 점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근세에 문장을 하는 선비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하여 품격을 무너뜨려 가며 천박한 글을 지어내곤 한다. 자신의 학식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역량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도리어 바른길을 버려두고 지름길을 찾아 패관 소설의 字句를 표절하는가 하면 또 明·淸 諸子에 나아가 奇癖함을 답습한다. …(중략)… 이 때문에 世道가 날로 각박해지고 士風이 날로 경박해져서 淸廟의 거문고 소리는 적막하여 들리지 않고 小品의 화려함은 날로 만 장의 종이로 전하여 지는데, 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미워하고 애통해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바로잡을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sup>14)</sup>

14) 『弘齋全書』卷163, 日得錄 3 文學.

“嘗敎諸閣臣曰。文章有道有術。道不可以不正。術不可以不慎。學文者。當宗主六經。羽翼子史。包括上下。博極今古。而卒之會極於朱子書。然後其辭醇正。而道術庶幾不差誤。況文章之道大矣。治敎之汗隆也。風俗之醇漓也。人心之正僞也。視此爲高下升降。而十卜其八九。獨怪夫近世爲文之士。厭菽粟而嗜龍肝。毀冠冕而被侏儒。自知學識不及古人。力量不

인용된 정조의 언급에 의거하여 문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六經을 익히기 위해 『오경백편』을 숙독하고, 子·史를 羽翼으로 삼기 위해 『팔자백선』과 『사기영선』을 익혀 고금의 문장을 널리 통달하되, 마지막에는 朱子の 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서백선』을 통독해야 한다. 『육주약선』과 『두륙천선』 역시, 주의문과 시를 배우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정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팔자백선』, 『주서백선』, 『사기영선』, 『육주약선』, 『두륙천선』이 丁酉字<sup>15)</sup>로 간행된 점, 6종의 선본이 모두 일체의 주석 없이 백문만을 실고 있는 점 등, 간행과 구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정조의 특수한 목적이 담긴 연속간행 어정서임을 알 수 있다.

『사기영선』은 이상과 같은 정조의 초록과 요약을 중시하는 학문관과 특정 문인들의 문장을 정문으로 뽑는 문장관, 그리고 그 문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 실행이라는 배경에서 편찬된 문헌으로, 사마천의 『사기』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親撰 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 3. 편찬목적

『사기영선』에 대해 『군서표기』 3권에서 정조는 그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司馬遷의 문장은 아득하고 엄숙하여 마치 神馬가 물을 다스리고 韓信이 군사를 부리는 것과 같아, 일반적인 법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기상과 품격에 抑揚과 굴절이 있고, 文采에 起伏과 照應이 있어 마치 구슬을 소반에다 굴리는 것 같고 그림쇠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같이 저절로 한 부분의 상세한 서술이

及古人, 則乃反舍正路而求捷徑. 剽竊稗官小說之字句. 又就明清諸子. 蹈襲奇僻. …(중략)…  
以是之故. 世道日就澆漓. 土風日趨浮薄. 清廟琴瑟. 寂寥無聞. 而小品綺羅. 日傳萬紙.”

- 15) 정조 즉위년(1777)에 甲寅字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활자로, 정조조의 綸音과 어정서의 인쇄에 주로 사용되었다. 정유자는 이전 활자인 壬辰字를 改鑄한 것이 아니고, 임진자에 加鑄한 것이므로, 그 字體가 같기 때문에 새로운 字名을 붙일 수 없으나, 정조는 규장각을 세운 일에 이어서 자신의 문화정책을 펴는 데에 필요하여 주조한 활자라는 점을 특별히 여겨, 그 해의 干支이자 자신의 즉위원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정유자’라고 명명하고, 규장각의 본원인 내각에서 따로 관리하였다(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사, 2012)).

있는 것이다. 歐陽脩가 揚子雲의 말을 서술하기를, “나무를 잘라 장기를 만들고 가죽을 다듬어서 공을 만드는데도 법이 있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문장에 있어서이겠는가. 이제 수천 년이 된 글을 網羅하여 그중에서 유독 20여 편을 가려 뽑았으니, 너무나 간략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그 법의 지극한 것을 취하였으니, 배우는 이에게는 스승과 법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이르기를, “苟況과 揚雄의 문장은 《周易》의 變體이고, 屈原과 宋玉의 騷는 《詩經》의 변체이며, 사마천의 《사기》는 또한 《春秋》에서 연, 월, 일 순으로 사건을 기술해 나가는 編年體 방식을 本紀와 列傳 중심으로 변경시켜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본기에는 黃帝를 맨 먼저 하고 項羽를 제왕의 반열에 올렸으며, 世家에는 太伯을 맨 먼저 하고 陳涉을 제후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先儒가 《춘추》를 잘 배웠다고 말하였으니 지나친 칭찬이 아니다. 읽는 사람이 의당 50만 글을 가지고 비슷한 종류를 서로 참고하여 그 기이하면서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곧으면서도 숨김이 없는 법을 관찰하여야 한다. 만일 수십여 편을 외고 익혀 조금 지은 사람의 規模를 엿보고서 작은 성취를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가 博學으로 말미암아 간략한 데로 되돌아가게 하는 뜻이 아니다.<sup>16)</sup>

정조는 사마천의 문장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그 중에서 자신이 20여 편을 가려 뽑은 것은 그 법도가 지극한 것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기영선』의 편찬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1794년<sup>17)</sup>은 明清 문집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sup>18)</sup>을 내리거나, 經書나 史書라도 唐板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는 명과 더불어 試券에 조금이라도 牌관잡기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下考에 두고, 이름을 발표하여 停擧하라는 명<sup>19)</sup>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거쳤음에도 해결

16) 『弘齋全書』 卷181, 群書標記 3 『史記英選』.

“子長之文. 灑灑靈靈. 如神禹之行水. 淮陰之用兵. 不可羈以常法. 然氣格之抑揚頓挫. 精采之起伏照應. 如珠走盤. 如規周旋. 自有一部鋪叙. 歐陽子述揚子雲之言曰. 斷木爲棊. 梳革爲鞠. 莫不有法. 而況於文乎. 今以網羅數千載之書. 獨選其二十餘篇. 可謂大約. 然亦取其法之至者. 爲學者師則也.

予嘗謂苟揚之文. 易之變也. 屈宋之騷. 詩之變也. 子長之史. 又以麟經之繫月編年. 而變爲紀傳也. …(中略)… 若夫本紀之首黃帝. 進項羽. 世家之首泰伯. 進陳涉. 先儒謂之善學春秋. 不爲過獎. 讀者當以五十萬言. 比類而參互. 以觀其奇而不詭. 直而無隱之法. 如以誦習數十餘篇. 稍窺作者規模. 謂足以小成. 則非予由博反約之意也.”

17) 김소희, “『史記英選』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40호(한국서지학회, 2012).

18)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5年(1791) 10月 25日 1번째 기사.

“乃命飭使行, 明清文集等冊子, 毋得購來.”

19)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5年(1791) 10月 19日 1번째 기사.

되지 않은 문체 문제의 근본을 바로 잡기 위해 『주서백선』을 간행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조가 사마천에 대해 그의 사관으로서의 책무나 사상, 치욕을 이겨내고 가학을 계승한 의지 따위는 배제하고, 그의 문장을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서술 방식에 대한 언급이 아닌, 문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6세기 즈음 나타난 『사기』의 성격 변화가 계속하여 이어져 온 것인 듯하다. 정조 역시 『사기』를 역사서보다 문장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조가 진한고문파의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명제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사실 『사기』는 본격적인 史로서의 저술이 아니라 立言書이자 諸子書를 의식하여 지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후대의 대부분의 사서와는 달리 『사기』에는 풍자와 교화의 의도가 많았으며, 그 풍자와 교화의 대상에는 군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사기』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겠다는 생각에서의 ‘述’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빌어 자신의 이상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史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실상은 개인의 情志와 道를 담은 제자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더욱이 『사기』는 당송과에서도 記事文을 지을 때에는 『사기』에서 法을 취해야 한다고 하며 숙독해야 할 문헌으로 여겼다. 이때의 ‘법’은 정조가 말한 ‘법’과 같은 것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법, 즉 文法 혹은 作法으로 일컬어지며,

“稗記·小說姑無論, 雖經書史記, 凡係唐板者, 切勿持來 …(중략)… 泮試諸券若有一涉於稗官小記者, 雖滿篇珠玉, 黜置下考, 勿坻其名而停擧, 無所容貸.”

- 20) 사마천은 微言으로 『춘추』를 지어 褒貶을 寄託했던 孔子의 영향과 董仲舒의 公羊春秋學의 가르침을 깊이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治를 담당하는 벼슬인 天官이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 힘입은 사마천은 조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漢은 이미 선진 제후국과는 크게 다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武帝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권력자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太史의 직분에 있던 사마천은 자신의 도를 실현하려다 결국 李陵의 件으로 형벌을 받았으며, 이에 『사기』라는 저작을 통해 道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한재환, “司馬遷의 士 觀念과 立言意識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편장자구법과 같은 수사법을 말한다. 즉, 진한고문과에서는 『사기』의 전범의 표현, 형식 등을 차용하거나 준용하여 진한고문을 흉내 내는 데 그친 반면에, 당송과에서는 『사기』에 녹아있는 서술법과 체계와 같은 수사법을 분석하고 학습하여 실제 작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sup>21)</sup>

때문에 진한고문과를 비판하고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전범으로 여겨 그들의 문장을 통해 문풍을 바꾸고자 했던<sup>22)</sup> 정조 역시 『사기』를 역사서보다는 훌륭한 문장서로서 인식하여 선본 편찬 대상 텍스트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인용문 중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춘추』의 編年體 방식을 本紀와 列傳 중심으로 변경시켜 만든 것이라는 언급과 ‘『춘추』를 잘 배웠다고 말하였으니, 지나친 칭찬이 아니다.’라는 평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마천의 『춘추』 존숭 태도와 『사기』의 『춘추』 계승 성격도 정조가 『사기』를 선본 편찬 대상 텍스트로 삼은 까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漢初의 黃老思想을 중심으로 한 百家의 여풍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시기에도 유가를 존숭하였는데, 특히 『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공자에 대한 존숭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sup>23)</sup> 아버지의 遺旨를 받들어<sup>24)</sup> 육경 가운데서도 ‘空言을 펴느니 자세한 行事를 기재하여 의도를 드러내겠

21)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22) 『팔자백선』의 편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대부분의 경우에 詩書와 공자를 빌어 비평의 표준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제후가 아니라 布衣之士였던 공자를 열전이 아닌 세가에 기재하였고, 열전이면서도 합전으로 처리한 老子, 莊子, 申不害, 韓非子나 孟子, 騶子, 慎到, 荀子, 墨子 등 다른 諸子들과 격을 크게 달리 하였다.

셋째, 공자의 77인의 제자를 따로 묶어 『仲尼弟子列傳』을 기록하였다. 이는 老莊墨孟荀 등의 제자를 중니제자와 동격으로 평가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따로 『儒林傳』을 세워 공자 이후 유자의 업적과 六經의 전수 계통을 밝혔다(한재환, “司馬遷의 士 觀念과 立言意識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24) 『史記』 「太史公自序」.

“太史公執遷手而泣曰：「餘先周室之太史也。自上世嘗顯功名於虞夏，典天官事。後世中衰，絕於予乎？汝復爲太史，則續吾祖矣。今天子接千歲之統，封泰山，而餘不得從行，是命也夫，命也夫！餘死，汝必爲太史；爲太史，無忘吾所欲論著矣。且夫孝始於事親，中於

다.’는 공자의 『춘추』 기술 정신에 입각하여 『사기』를 저술하면서, 자신이 공자의 뒤를 이어 5백년 만에 사적을 정리한다는 특유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공자가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다.’<sup>25)</sup>라고 한 언급을 자신의 경우에까지 차용하여, 자신 역시 ‘후세의 성인과 군자를 기다리겠노라’<sup>26)</sup>고 밝히며, 『춘추』와 『사기』가立言의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기』의 기술을 『춘추』와 마찬가지로 ‘麟止’에서 마치고 있는 것<sup>27)</sup> 역시 『사기』가 『춘추』의 後身임을 보여준다.

공자 존숭의 태도와 그의 뒤를 계승한다는 사명의식 등의 모습은 정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조는 『사기영선』과 같은 편찬 배경의 연속간행물인 『오경백편』을 편찬할 때, 초기 표제인 『오경백선』의 “選”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경서는 선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서, “어떤 사람이 ‘경서는 추려 뽑아서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자께서 『시경』과 『서경』을 산정한 것은 추려 뽑은 것이 아니던가.”<sup>28)</sup>라고 주장하였다.<sup>29)</sup> 이 일례에서 정조가 자신이 선본을 편찬하는 일을 공자가 『시경』과 『서경』을 산정한 일에 견주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조는 『춘추』의 大義가 깊고 심오한 공자의 뜻을 담고 있는

---

事君，終於立身。揚名於後世，以顯父母，此孝之大者。夫天下稱誦周公，言其能論歌文武之德，宣周邵之風，達太王王季之思慮，爰及公劉，以尊后稷也。幽厲之後，王道欠，禮樂衰，孔子脩舊起廢，論詩書，作春秋，則學者至今則之。自獲麟以來四百有餘歲，<sup>72)</sup>而諸侯相兼，史記放絕。今漢興，海內一統，明主賢君忠臣死義之士，餘爲太史而弗論載，廢天下之史文，餘甚懼焉，汝其念哉！選俯首流涕曰：「小子不敏，請悉論先人所次舊聞，弗敢闕。」

25) 『史記』 「孔子世家」.

“孔子曰 後世知丘者以春秋，而罪丘者亦以春秋。”

26) 『史記』 「太史公自序」.

“藏之名山，副在京師，俟後世聖人君子。”

27) 『史記』 「太史公自序」.

“於是卒述，陶唐以來，至于麟止。”

28)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文學.

“予看文喜選法。五經中選百篇，以便誦讀，或曰經不可選也。然則夫子之刪詩書，獨非選耶。”

29) 윤현정, “朝鮮朝 正祖親撰 『五經百篇』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중요한 경서라고 생각하였다.<sup>30)</sup>

따라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조가 『춘추』의 뒤를 잇는 기록으로 여겨지는 『사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리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정조는 사마천의 『사기』에 담긴 문장의 유려함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사기』의 『춘추』 계승을 인정하고, 그 편찬 방식이 『춘추』에서 기인하였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하여 선본의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사기영선』의 편찬 목적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문장 작법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만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문인들이 편리하게 문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문풍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편찬분석

### 4.1 구성

『사기영선』에는 본기 1편, 세가 2편, 열전 23편의 총 26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표와 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래 『사기』는 本紀 12편, 世家 30편, 書 8편, 表 10편, 列傳 70편의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조는 그 중에서 총 26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본래의 양보다 5분의 1을 줄인 셈이다. 이는 『사기』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선본들보다 적은 양인데,<sup>31)</sup> 이를 정조 스스로도 ‘너무나 간략하다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내 곧 ‘선별된 글들만을 외고 익히고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비슷한 종류의 문장을 참고하여 연구’하기를

30) 『弘齋全書』卷108, 經史講義 45 總經日.

“春秋, 五經之斷例也. 其公好惡則發乎詩之情, 酌古今則貫乎書之體, 興典常則通乎禮之經, 著權制則盡乎易之變, 居五經之終, 備五經之用. 蓋亦四時之冬四德之貞, 而窮經說理者, 所不可一日闕也. 雖然聖人立言, 必有大義, 而讀之者亦必先求其大義之所在. 夫褒見一字, 貴如軒冕, 貶在片言, 誅深斧鉞, 辨名分寓王法, 使夫天下萬世之善者勸焉, 惡者懼焉, 此乃古人所以論春秋之大義.”

31) 조선에서 편찬된 『사기』를 대상으로 한 선본들의 수록 편수는 대개 『史記全選』 45편, 『史記拔萃』 60편, 『史漢一統』 42편 등으로 『사기영선』보다 많다.

권하며 수록 편수를 늘리지 않았다.

또, 『사기』가 모두 130편이기 때문에 앞서 간행했던 『팔자백선』이나 『주서백선』처럼 100편을 선별할 경우, 그 수가 지나치게 많게 되므로, 10의 배수라는 선별 편수에 한정하지 않고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명 역시 ‘百選’으로 칭하지 못하고, 文詞를 비유하는 글자이자 정수라는 의미의 精華,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優美의 뜻을 포함하는 ‘英’<sup>32)</sup>을 사용하여 ‘英選’이라고 칭한 것이다.<sup>33)</sup>

3책 6권으로 구성된 이 문헌은, 권 1에는 「項羽本紀」, 「蕭相國世家」, 「留侯世家」, 권 2에는 「伯夷傳」, 「管仲晏嬰傳」, 「伍子胥傳」, 「蘇秦傳」, 「孟嘗君傳」, 「平原君傳」, 권 3에는 「信陵君傳」, 「范雎傳」, 「樂毅傳」, 「屈原傳」, 「張耳陳餘傳」, 권 4에는 「淮陰侯傳」, 「酈生陸賈傳」, 「袁盎傳」, 「吳王濞傳」, 권 5에는 「魏其侯武安侯灌夫傳」, 「汲黯傳」, 「李將軍傳」, 「刺客傳」, 「游俠傳」, 권 6에는 「滑稽傳」, 「貨殖傳」, 「太史公自序」가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권 1에는 총목이, 모든 권의 앞에는 해당 권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각 권의 목차에는 한 칸을 낮추어 해당 권 호를 표기하고, 다시 한 칸을 더 낮추어 편명을 표시하고 있는데, 「刺客傳」, 「游俠傳」, 「滑稽傳」, 「貨殖傳」과 같은 類傳<sup>34)</sup>의 경우, 편명 아래에 小字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별도의 ‘본기’, ‘세가’, ‘열전’과 같은 구분은 표기하고 있지 않다. 두 칸을 낮추어 제목을 표기하고 줄 비움 없이 시작되는 본문은 일체의 批評이나 細註 없이 大字로 白文만을 싣고 있으며, 사마천의 비평이 시작되는 ‘太史公曰’부터 줄을 바꾸는 경우 외에는 칸을 낮추거나 줄을 비우는 일 없이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32) 『漢語大詞典』.

33) 정조의 御製書와 命撰書 목록집인 『군서표기』에 수록된 문헌 중 ‘英’이라는 글자를 서명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은 『사기영선』과 國朝의 館閣文字를 各體別로 가려 뽑아서 1775년 편찬된 『詞苑英華』, 그리고 매년 應製榜眼을 部로 분류하여 모아 편찬한 『育英姓彙』가 있는데, 『사원영화』는 『사기영선』과 같이 ‘精華’의 의미로 ‘英’을 사용한 반면, 『육영성취』는 ‘英才’의 의미로 ‘英’을 사용하였다.

3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 등 같은 부류의 인물들을 동일 전기에 거의 동일 비중으로 다룬 것이다. 雜傳, 혹은 彙傳이라 부르기도 한다(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단, 내용 중 산삭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주를 달아 산삭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合傳 중 일부 인물만을 선별한 편에는 ‘凡同傳而不並選者 論贊則不刪 下倣此’라는 세주를 달아, 일부만을 선별 및 산삭하되 사마천의 논찬은 산삭하지 않았음을 표기<sup>35)</sup>한 것을 들 수 있다. 『사기』의 열전 서술 형식 중에는 두 사람 이상의 전기를 한 편에 합쳐 동일한 학술, 혹은 학술의 원류가 같은 경우, 업적이 유사한 경우, 行事가 같거나 같은 사건에 관련된 경우, 기질이 비슷한 경우 등의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각 같은 비중으로 서술하는 합전<sup>36)</sup>이 존재하는데, 『사기영선』에서는 합전 중 일부 인물만을 선별하고 다른 인물들은 刪削하여 수록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합전이 아닌 경우에도 산삭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빠짐없이 세주로 표기하고 있다.<sup>37)</sup>

한편, 『사기영선』의 구성 중 편명의 표기에 있어서 『사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기』와 『사기영선』의 편명 표기 차이

『사기』	『사기영선』	비고
『平原君虞卿列傳』	『平原君傳』	특정 인물 산삭
『魏公子列傳』	『信陵君傳』	존칭 미사용
『范雎蔡澤列傳』	『范雎傳』	특정 인물 산삭
『屈原賈生列傳』	『屈原傳』	특정 인물 산삭
『袁盎鼂錯列傳』	『袁盎傳』	특정 인물 산삭
『魏其武安侯列傳』	『魏其侯武安侯灌夫傳』	인물의 이름 모두 표기
『汲鄭列傳』	『汲黯傳』	특정 인물 산삭 후 인물의 이름 모두 표기

대부분 합전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록하는 과정으로 인해 제목이 변경되었거나 해당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수정인

35) 이러한 세주는 간본에 상관없이 모두 수록된 내용이지만, 간본에 따라 권2의 『평원군전』 끝 혹은 권3의 『범수전』 끝 등 수록된 위치에 차이를 보인다(김소희, “『史記英選』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40호(한국서지학회, 2012), 147).

36) 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37) 『소진전』의 ‘蘇代蘇厲事刪’, 『굴원전』의 ‘賦辭刪’, 『이장군전』의 ‘以下刪’ 등의 세주.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信陵君傳』의 경우, 사마천이 四君<sup>38)</sup> 중에서도 가장 흠모했던 신릉군을 높이기 위해 ‘위공자’로 표기한 것과 달리, 정조는 평원군, 맹상군과 똑같이 ‘신릉군’이라는 封號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여러 사료를 참고해볼 때, 정조가 無忌를 ‘위공자’보다 ‘신릉군’이라고 칭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정조는 그를 사군 중의 한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편명 표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사기』에서 『蘇秦列傳』 등으로 命名되어 있는 것을 전부 『蘇秦傳』과 같이 ‘列’ 한 글자를 생략하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사기』 『열전』의 명칭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물들을 각기 분리하여 기록한다는 의미의 ‘列’에 ‘烈’과 ‘例’의 의미를 더하여, ‘여러 분야에서 각기 烈業을 남긴 대표적 인물들을 行義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 事例로 제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어디까지나 역사기술에 한하여 서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 『열전』인 것이다.<sup>39)</sup>

반면, 徐師曾의 『文體明辯』에 따르면 ‘傳’이란 史蹟을 기록해 실어 후세에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傳記文體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으로부터 시작되어 家傳,<sup>40)</sup> 托傳,<sup>41)</sup> 假傳<sup>42)</sup>으로 발전하였는데, 일반 문인들이 지은 전기체 산문은 ‘열전’이라 하지 않고 ‘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정조는 ‘열전’의 명칭에서 史傳의 성격을 띠는 ‘열’ 한 글자를 생략하고 문인들의 산문이라는 뜻으로 통칭되는 ‘전’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편명의 표

38) 信陵君은 이름이 魏無忌, 平原君은 趙勝, 孟嘗君은 田文, 春申君은 黃歇로, 전국 시대 四公子, 四君으로 불리었다. 네 사람은 모두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선비들을 좋아하여 항상 문하에 식객이 3,00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한국고전번역DB).

39) 김유리, “傳文學의 形態의 考察: 列傳·假傳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0).

40)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본받아 사서에 올릴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 훌륭한 사람의 행적을 남기고자 하여 지어진 私의 성격의 傳記.

41) 문인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회를 어떤 사람의 행적처럼 꾸며서 寓意하여 나타낸 傳記.

42) 史傳이 취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실제 인물 대신, 작자의 의도에 따라 가칭된 인물 혹은 사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입전되는 허구의 傳記.

기는 정조의 『사기영선』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여러 선본들과 『사기』의 내용을 선별하여 수록한 문장선집들에서도 곧잘 확인할 수 있어, 『사기영선』의 성격이 사서보다는 문장서에 가깝다는 의견에 근거를 더한다.

『사기영선』의 배열 순서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張耳陳餘列傳」보다 앞에 위치한 「자객전」을 뒤쪽으로 배치하였고, 「이장군전」보다 뒤에 위치한 「급암전」을 앞에 두어, 두 편외의 순서가 다른 것 이외에는 모두 『사기』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표 3> 『사기』와 『사기영선』의 배열 순서 차이

卷次	『사기』	『사기영선』
	...	...
84	「屈原賈生列傳」	「屈原賈生傳」
85	「呂不韋列傳」	
86	「刺客列傳」	
87	「李斯列傳」	
88	「蒙恬列傳」	
89	「張耳陳餘列傳」	「張耳陳餘傳」
	...	...
107	「魏其侯武安侯灌夫傳」	「魏其侯武安侯灌夫傳」
108	「韓長孺列傳」	「汲黯傳」
109	「李將軍列傳」	「李將軍傳」
	...	「刺客列傳」
118	「淮南衡山列傳」	
119	「循吏列傳」	
120	「汲鄭列傳」	
121	「儒林列傳」	
122	「酷吏列傳」	
123	「大宛列傳」	
124	「游俠列傳」	「游俠傳」
125	「佞幸列傳」	
126	「滑稽列傳」	「滑稽傳」
127	「日者列傳」	
128	「龜策列傳」	
129	「貨殖列傳」	「貨殖傳」
130	「太史公自序」	「太史公自序」

사마천은 『사기』 열전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서도 자신의 관점과 평가 의중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刺客列傳』은 荊軻가 진시황을 암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전국시대 말, 즉 『蒙恬列傳』 뒤, 『장이진여열전』의 앞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사기영선』에서 『자객전』을 『이장군전』의 뒤, 『유협전』의 앞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자객전』, 『유협전』, 『골계전』, 『화식전』 등 유전에 해당하는 편들을 한데 배치함으로써 통독할 때의 편의를 위해서인 듯하다.

또, 사마천은 『淮南衡山列傳』, 『循吏列傳』, 『汲鄭列傳』, 『儒林列傳』, 『酷吏列傳』, 『大宛列傳』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 한대 통치자 내부의 권력쟁탈과 살상, 정치적 모순의 폭로와 정치의 본질제시 등을 보여주며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sup>43)</sup> 그런데 이 때 『순리열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왕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금정열전』을 그 뒤에 배치하여 한 왕조 때 直諫을 서슴지 않았던 汲黯과 鄭當時의 행적을 다루었다. 정조는 이 글에서 汲黯 부분만을 선별하여 『금암전』으로 제목을 바꾸고, 『위기후무안후관부전』의 뒤, 『이장군전』의 앞에 배치하고 있다. 그 까닭은 관련 기록이 전무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무안후가 승상이 되었을 때, 모두가 그를 알현하였지만 금암은 長揖만 할뿐, 옳드려 拜禮를 하지는 않았던 일화를 통해 금암의 강직함을 돋보이게 하고자 『위기후무안후관부전』의 바로 뒤에 배치한 것인 듯하다.

## 4.2 수록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사기영선』의 선별 기준을 규명하기 위해 수록된 내용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기영선』이 선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선별이 다른 『사기』 선본의 선별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조선에서 편찬된 문장 선본 중에서 『사기』를 대상으로 한 문헌, 혹은 『사기』의 일부를 실고 있는 문헌 중 수록된 편명의 목록을

43) 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확인할 수 있는 총 19종의 선본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기』 선집 수록 빈도표<sup>44)</sup>를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실행한 것은, 『사기』에 대한 문장 선본은 그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30편 중 선별되어 수록된 편들이 대부분 중첩되고, 그 중 본고에서 다루는 『사기영선』의 경우, 선별 편수가 매우 적어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기영선』에 수록된 26편 중 어떤 내용이 정조에 의해 재평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기영선』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선집 수록 빈도표를 통해 선본들이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은 22편<sup>45)</sup>은 분석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표 4> 『사기영선』 수록 내용의 타선본 수록 빈도

타선본 수록 빈도수	편명	비고
13회	「伯夷傳」, 「范雎傳」	
12회	「信陵君傳」	
11회	「貨殖傳」	
10회	「項羽本紀」	
9회	「伍子胥傳」, 「蘇秦傳」, 「孟嘗君傳」, 「平原君傳」, 「屈原傳」	
8회	「太史公自序」	
7회	「淮陰侯傳」, 「游俠傳」	「游俠傳」의 경우 郭解, 劇猛, 魯朱家 등 따로 수록된 경우는 모두 각 7회이다.
6회	「留侯世家」, 「樂毅傳」, 「張耳陳餘傳」, 「袁盎傳」, 「吳王濞傳」, 「滑稽傳」	「滑稽傳」의 경우 優孟, 優旃, 淳于髡이 따로 수록된 경우는 모두 각 4회이다.
5회	「汲黯傳」, 「李將軍傳」	
4회	「蕭相國世家」, 「魏其侯武安侯灌夫傳」, 「刺客傳」	「刺客傳」의 경우 荊軻와 聶政이 따로 수록된 경우는 각 9회와 8회이다.
2회	「管仲晏嬰傳」, 「酈生陸賈傳」	

44)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에서 인용 하되, 해당 논문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기』 발췌 수록 내용까지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45) 이현호는 공통적으로 수록되지 않은 글들에 대하여 깊은 주제의식을 보여주거나 사건의 서사가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이 미수록된 원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우선, <표 4>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록 빈도수가 높은 편들이 선별되어 있어, 『사기영선』의 선별이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이전」, 「범수전」, 「신릉군전」, 「화식전」, 「항우본기」 등은 깊은 주제의식과 뛰어난 문장을 겸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글들이다.

「백이전」은 『사기』의 70 열전의 첫 편으로, 청렴한 성인을 첫머리에 놓아 말세의 문란한 사회를 개탄하며 청렴과 의리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사마천의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곧, 열전의 序論 내지는 『사기』의 總序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열전의 다른 편에는 말미에 ‘태사공왈’이라는 評語를 붙였으나 이 편은 평어가 없고, 전편이 태사공의 평어처럼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46)</sup>

「범수전」은 고난을 이겨내고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성공하는 일련의 극적인 이야기와 공을 세운 후 깨끗하게 물러난 범수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어 ‘遇時’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글이다. 정조는 본래 범수와 蔡澤의 합전인 이 열전에서 채택의 부분은 산삭하고 수록하였는데, “세상에서 말하기를, ‘범수와 채택은 辯舌로써 서로 경쟁하였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범수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한 일이 많았는데 채택은 그렇지 못하였으니, 어찌서인가? 자신의 재능을 숨겨 그 자취를 드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 그 지위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辯士로 칭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론하고 판단하여야 그 인물을 그럴듯하게 평하였다 할 수 있겠는가?”<sup>47)</sup>라는 언급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정조의 관점이 어떠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조는 범수를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아는 미덕을 갖추고 있는, 단순한 ‘변사’로만 칭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겨, 기회를 이용하고 틈을 엿보는 부류인 채택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릉군전」은 사마천이 사군자 중에서 유독 ‘魏公子’라고 존칭한, 위나라의

46) 이한조, “伯夷와 司馬遷: 史記總序로서의 伯夷列傳,” 『대동문화연구』 제8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209-237.

47) 『弘齋全書』 卷110, 經史講義 47 綱目 1.

“世言范蔡以辯口相傾奪。…(중략)… 然雖之相秦。多有所施爲。而澤則無聞焉何也。豈其藏用而不露其跡。知足而不久其位歟。然則其人似不可但以辯士稱之。未知如何論斷。方可謂擬得其倫耶。”

신릉군 公子無忌의 열전으로, 그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존중하였으며 오로지 義만을 따르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아 고고한 이름을 남긴 점 등이 서술되어 있어, 이후 문인들이 현자를 예우하는 것과 관련한 문장을 작성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글이다.

『화식전』은 『사기』의 70 열전에서 『太史公自序』를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 편으로, 첫 편인 『백이전』이 義를 좇는 인간상을 보여줬다면, 『화식전』은 利를 좇는 인간상을 보여주며 『사기』 『열전』 전체를 관통하는 역할을 한다. 『화식전』은 전통 시기의 문인에게 있어 義에 상반되는 개념인 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致富를 긍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조 또한 華城을 건축한 뒤, ‘이익을 일으켜 생업을 편안히 해서 성내를 부유하고 충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진실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화식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48)</sup> 또, 『화식전』은 그 구조에 있어서도 특징을 지니는데, 유전은 다른 열전에 비해 사마천의 논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화식전』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논평을 펼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明代의 문인 王鏊는 ‘의론이 끝나기 전에 홀연히 서사가 등장하고, 서사가 끝나기 전에 또 의론이 등장해서 유사한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후세에 결코 이와 같은 글이 없을 정도로 매우 기이하다.’<sup>49)</sup> 라고 평하기도 하였다.<sup>50)</sup>

『항우본기』는 제왕들의 전기, 즉 『본기』 12편 중 시대적으로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변혁의 역사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제왕이 아닌 항우를 본기에 넣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항우는 제왕이 아니므로 본기에 들어갈 인물이

48) 『日省錄』 正祖 21年 2月 22日.

“貨殖傳云 千金之家 比一都之君 此所謂素封者非耶 …(中略)… 至若興利安業 有城內富實之效 則固無不可.”

49) 『震澤長語』 卷下.

“史記貨殖傳議論未了, 忽出敘事, 敘事未了, 又出議論, 不倫不類, 後世決不如此作文, 奇亦甚矣.” (楊燕起 외, “『史記研究集成』 6권, 양중석, 『《史記·貨殖列傳》의 창작목적,』 『中國文學』 제83권(한국중국어문학회, 2015)에서 재인용).

50) 양중석, “《史記·貨殖列傳》의 창작목적, 『中國文學』 제83권(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항우를 본기에 넣고 『高祖本紀』 앞에 배치하여, 그의 진나라를 멸망시킨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는 자신의 역사관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승리에 도취하여 옛 현인의 말과 옛 역사의 사례를 배우지 않고 오로지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하여 몰락하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항우본기』는 문학사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생생한 전투 장면 묘사와 인물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 묘사 등이 뛰어난 문장으로 여겨진다.<sup>51)</sup> 역사적 진실의 추구하고 날카로운 역사관, 비판적인 평가와 더불어 문학적 성취까지 겸하고 있는 이 편에 대해 정조 또한 “본기에 皇帝를 맨 앞에 놓은 것과 항우를 본기로 올린 것, 世家에 泰伯을 맨 앞에 둔 것과 陳涉을 세가로 올린 것을 두고 先儒가 『춘추』를 잘 배웠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찬이 아니다.”<sup>52)</sup>라고 말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였고, 『항우본기』를 읽고 시를 읊기도 하였다.<sup>53)</sup>

즉, 사마천의 『사기』 저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서술하고 있는 인물의 교훈성이 뚜렷하고, 문학적 성취가 뛰어나 보편적으로 명작이라 일컬어져 다른 선본에서도 자주 수록된 글 중, 특히 정조 자신의 사상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상국세가』, 『위기후무안후관부진』, 『관중안영전』, 『역생육고전』 등은 다른 선본에서는 거의 수록되지 않은 글들인데, 정조는 『사기영선』에 이 글들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상국세가』는 춘추전국 이래 주요 제후국과 한나라 시기 봉해진 제후 및 귀족이 역사를 서술한 30 세가 중, 한나라 개국 공신인 소하를 다룬 세가이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소하가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동시에 봉건체제 하의 군신관계가 가진 모순과 행태를 절묘하게 폭로하고, 소하와 유방의 관계를 묘사하는 등 매우 복잡하

51) 김원중 역, 『사기본기』 해제 (민음사, 2010).

52) 『弘齋全書』 卷181, 群書標記 3 『史記英選』.

“若夫本紀之首黃帝。進項羽。世家之首泰伯。進陳涉。先儒謂之善學春秋。不爲過獎。”

53) 『弘齋全書』 卷1, 春邸錄 1.

“『讀項羽本紀』鴻門帳外楚聲皆 隆準俄從百騎來 浪死居巢頭白老 未聞此日乞骸回。”

고 미묘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다른 세가와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그 문장 또한 탁월하여, 『사기』의 세가 중에서 「유후세가」와 함께 문학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글이다.

정조는 소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未央宮을 크게 일으킨 일과 법령을 제정한 일, 진나라의 관적을 거둔 일을 높이 평가하였다. 수원화성을 건립할 때에 “한갓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옳지 않지만,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兵法에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蕭何는 미양궁을 크게 지었고, 또 말하기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루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꺾이게 하는 것도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54)</sup> 라고 한 일과 涵仁停에서 초계문신의 제술을 행할 때에 ‘소하가 미양궁을 크게 일으켰다(蕭何大起未央宮)’는 것으로 論題를 삼기도 하는<sup>55)</sup> 등의 기록, “소하가 畫一하듯이 명확하게 법령을 제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曹參이 淸靜한 정치를 시행하여 백성이 안정될 수 있었다.”<sup>56)</sup>는 언급, 그리고 초계문신의 親試 再試에서 版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소하가 진나라에 들어가 맨 먼저 관적을 거두어들이자 호구의 많고 적음을 모두 알게 되었다.”<sup>57)</sup>는 말로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미양궁을 크게 건축한 일에 대하여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뉘는데, 남송의 呂祖謙(1137-1181)은 “高帝는 創業의 임금으로서 스스로 마땅히 검소함을 먼저 힘써야 할 것인데 소하는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평하였으나,

54)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7年 12月 8日.

“徒爲觀瞻之美，而不念堅緻之方，固不可，而觀瞻之美，亦有助於禦敵。兵法貴乎先奪人之氣，故蕭何大治未央宮，亦曰：‘非壯麗，無以重威。’然則城樓雄麗，使觀者奪氣，亦爲守城之大助。”

55) 『日省錄』 正祖 5年 8月 8日.

“以蕭何大起未央宮爲論題。”

56) 『弘齋全書』 卷170, 日得錄 10 政事.

“有蕭何之較若畫一。然後方可有曹參之載其寧壹。”

57) 『弘齋全書』 卷51, 策問 4 版籍.

“先收入秦之初。具知多少。”

陳植은 “소하가 크게 궁실을 건조함은 機를 바꾸어 壯麗함을 자랑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그 무식함을 나무라니 소하의 형세를 통해 근본을 정하고자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sup>58)</sup> 정조는 수원화성을 염두에 두고 후자의 관점에 동조하여 소하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여겼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위기후무안후관부전』은 위기후 두영과 무안후 전분, 그리고 관부의 합전으로, 외척 관계를 이용해 요직에 올라 권세를 휘두르다가 폐가망신하는 내용으로, 사마천은 “재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까닭과 결과가 있기 마련”<sup>59)</sup>이라는 논평을 하며 비판하고 있다. 정조는 즉위 초, 貞純王후의 경주 김씨 세력과 자신의 외가인 풍산 홍씨 세력, 정후경 등 戚族을 모두 축출하는 등 외척 세력에 대한 경계를 극진히 하였다. “나는 동궁 시절부터 성품상 사대부 접견하기를 좋아하였고, 또 외척이 정치에 간여하는 걱정을 깊이 징계하여 반드시 한 세상을 크게 새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규장각을 만들고 각신을 둔 것은 이 때문이다.”<sup>60)</sup>라고 하며, ‘외척을 배제하고 사람을 등용한다(右賢左戚)’와 ‘학자를 우대하고 학문연구에 입각한 정치(右文之治)’를 내세운 정조에게, 외척이 권세를 휘두르다가 폐가망신하는 내용의 『위기후무안후관부전』은 반면교사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중안영전』은 춘추시대의 명재상 관중과 안영의 합전으로, 두 인물의 시대는 100여 년 떨어져 있지만, 어진 현자이자 명재상으로서 비슷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 함께 엮여져 있다. 그러나 사마천은 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관중에 대해서는 사치스럽고 뻔뻔하며 염치가 없는,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며,

58) 『性理大全』 卷60, 歷代二 蕭何.

“東萊呂氏曰 蕭何治未央 但欲高帝安於此 不欲之他爾 要之創業之君 自當以儉爲先 何慮不及此也 …(중략)… 潛室陳氏曰 …(중략)… 大建宮室 以轉其機 至其自誇壯麗 今人皆譏其無識 不如何不欲以據形勢定根本.”

59) 『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嗚呼哀哉! 禍所從來矣.”

60) 『弘齋全書』 卷177, 日得錄 17.

“予自春邸, 性之所好, 好接士大夫, 且深懲戚畹干政之患, 必欲丕新一世, 剗內閣置閣臣者此也.”

안영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겸소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는데, 이는 공자가 이 두 인물에 대해 평한 말들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 정조는 “관중 한 사람을 공자께서 깎아 내리기도 하고 추어올리기도 했던 것에서 우리러 알 수 있는 바가 있으니, 백리해와 관중, 안영의 우열은 참으로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사와 같으며, 관중은 끝내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초계문신 徐俊輔가 “관중의 덕은 그 재주를 이기지 못하였고, 子產의 재주는 그 덕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산의 사람됨이 관중보다 우수하다는 논의를 펼치자, 정조는 “덕이 재주를 이기는 사람을 어떻게 재주가 덕을 이기는 사람에 비교하겠는가. 그러나 주자의 이 가르침은 또한 한쪽으로만 집착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답하며<sup>61)</sup> 자신이 존송하는 주자의 언급이라도 관중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이 외에도 관중과 안영의 긍정적인 업적을 인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정조의 이 두 인물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다.

『역생육고전』은 언변으로 한나라에 큰 공을 세운 역이기와 육고를 다룬 합전으로, 두 사람 모두 유가가 한나라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육고의 경우, 한나라가 왕도정치의 전통을 계승하고 진나라의 법가 통치를 혁파하도록 만들었고, 그가 주장한 유교적 왕도정치를 통해 한나라는 반세기 이상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유학자들에게 훌륭한 인물로 여겨진다. 정조는 역이기에 대해 그와 한 고조의 일화에서 나타난 임금을 돕는 훌륭한 賢臣과 그를 존중하는 名君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시를 짓는 등<sup>62)</sup> 각별한 태도를 보였다. 육고에 대해서도 그의 공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61) 『弘齋全書』卷123, 魯論夏箋 2.

“然則子產之爲人。優於管仲歟。朱子曰管仲之德。不勝其才。子產之才。不勝其德。雖以此觀之。德勝才。亦勝於才勝德矣。德勝才。豈可比之才勝德乎。朱子此訓。亦不必泥滯一邊看。”

62) 『弘齋全書』卷2, 春邸錄 2.

“『鄴生行』泗上亭長竹皮冠 岸頂見人人不怪 平生不重諸侯客 踞床乃接蕭曹輩 騎士長跪亭長前 曰有鄴生造門請 食其其名鄴其姓 有舌三寸千人競 亭長聞之一大笑 試使來汝鯁生見 大布之衣支骨稜 意氣軒昂雙眄轉 有眼不識亭長尊 舉袖高揖胡爲乎 座上觀者皆竊罵 亭長獨知其奇儒 一語風雲合 肝膽兩相照 不有下士誠 那能爲高廟 鄴生非英雄 英雄真

그의 저서인 『新語』의 한 구절을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63)</sup>

즉, 다른 선본에서는 거의 수록되지 않은 글들이더라도, 정조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사기영선』에 수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원화성 건축이나 외척을 배제하고 학자를 우대하는 정치 등 정조 자신의 행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인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기영선』에는 미수록되었지만, 다른 선본에서는 수록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영선』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곧 정조의 선별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기영선』은 수록 편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조는 “20여 편을 가려 뽑았으니, 너무나 간략하다고 할 만하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곧 미수록된 글에 정조의 선별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 편들을 분석하여 『사기영선』의 선별 기준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표 5> 『사기영선』 미수록 편의 타선본 수록 빈도

타선본 수록 빈도수	편명	비고
9회	『老子韓非傳』, 『仲尼弟子傳』	
8회	『魯仲連鄒陽傳』, 『李斯傳』	
7회	『春申君傳』	
6회	『張儀傳』, 『季布欒布傳』	
5회	『秦始皇本紀』, 『陳丞相世家』, 『田儼傳』, 『張釋之馮唐傳』, 『韓長孺傳』	
4회	『商君傳』, 『劉敬叔孫通傳』, 『衛將君驃騎傳』, 『司馬相如傳』, 『淮南衡山傳』, 『匈奴傳』	

是隆準公.”

63) 『弘齋全書』卷162, 日得錄 2.

“陸賈新語辨惑章曰。舉事者或爲善而不稱善。或不善而稱善者何。視之者謬而論之者誤也。此說果好。但天下之事。善則善矣。或稱善稱不善者。特人見未周然也。”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老子韓非傳」, 「仲尼弟子傳」, 「魯仲連鄒陽傳」, 「李斯傳」, 「春申君傳」, 「張儀傳」 등은 『사기』를 대상으로 한 선본에 수록된 빈도가 9회에서 6회로 높은 편이다. 「노자한비전」은 노자와 장자, 신불해와 한비를 합전한 열전으로, 사마천이 법가와 도가를 같은 위치에 두고 신불해와 한비 두 사람의 사상을 황로사상에 귀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주자성리학을 존송하였던 정조는, 기본적으로 도가사상을 배척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에 「노자한비전」을 수록하지 않은 듯하다.

「이사전」 역시 “告子는 子夏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못 氣를 숭상하는 습성이 있고, 荀卿은 高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性惡의 설을 내세웠으며, 이사는 舜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서적을 불태우고 경서를 훼손하고자 말았던 것이다. 한마디 말이 어긋난 데서 오는 末流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두렵지 않겠는가.”<sup>64)</sup>라고 말하며 이사의 사상을 문제 삼아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사의 경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焚書라는 불경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이르렀기에 선별에는 부적합하였을 것이다.

「장의전」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선별되지 않은 듯하다. 정조의 “吾道가 제대로 전수되지 아니하고부터 이단의 말들이 시끄럽게 일어난 지가 오래다. 신불해와 한비자의 功利, 孫子와 吳子의 權謀, 莊子와 列子의 허탄한 말들, 公孫衍과 張儀의 縱橫說에서부터 方士들의 허망한 학설들과 神仙의 煉丹術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인들 道를 해치고 經에 어긋나는 이론이 아닌 것이 없다.”<sup>65)</sup>는 언급은 이들 사상과 해당 인물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張儀의 사상을 淫辭로 규정하면서,<sup>66)</sup> “맹자가 위나라에 있었는데, 張의가 위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64) 『弘齋全書』 卷120, 鄒書春記一 告子篇.

“告子出於子夏。故頗有尙氣之習。而荀卿出於告子。故有性惡之說。李斯出於荀卿。故至於焚書毀經而後已。一言之差。末流受弊有如許。可不懼哉。”

65) 『弘齋全書』 卷82, 經史講義 19 中庸 3.

“自夫吾道失傳。而異言之喧騰也久矣。申韓之功利。孫吳之權謀。莊列之謬悠詭說。衍儀之縱橫捭闔。以至方士迂誕之說。神仙黃白之術。安往非害道畔經之論。”

66) 『弘齋全書』 卷120, 鄒書春記一.

“楊墨之說。固淫辭中一大弊癘。而申、韓、衍、儀。何莫不然。又於其外凡屬悖經非聖之說。無

도 즉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sup>67)</sup>라고 말한 것을 통해 정조가 장의를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진전』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장의전』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중복을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중니제자전』은 공자의 제자 77명에 대한 내용으로, 유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중국 고대 유학의 흥성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어, 마땅히 선별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는 “맹자는 ‘유약이 공자와 비슷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인과 비슷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보면 그의 언행이나 기상을 감히 부자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얼마나 환히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데도 그만 司馬氏가 사리에 맞지 않는 설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모습이 공자와 비슷했다.’고 억단함으로써 咸淳 연간에 祭酒로 하여금 子張을 올리고 유자는 물리치는 결과를 빚게 하였다.”<sup>68)</sup>고 말하며 사마천의 서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그 내용들이 대부분 『論語』에서 인용되고 있어 문장의 지극한 법도를 선보이는 목적의 『사기영선』에는 수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 듯하다.

『노중련추양전』은 전국시대의 노중련과 한대의 추양의 합전으로, 권력과 부를 경시하고 명예를 높이 여겨 권력과 높은 신분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의만을 추구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러나 정조는 “子順은 노중련을 高士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자순의 생각은 어떤 인물을 고사로 지목하는

非淫辭.”

67) 『弘齋全書』 卷110, 經史講義 47 綱目 1.

“張儀魏產也。說秦君反噬魏。既取蒲陽。又取陝儀。於魏反虜也深讎也。及得罪於秦而奔魏。反用之爲相。爲惠王計。可謂愚矣。時孟子尙在魏。見張儀之入魏。不即適他者。聖人必有所以然之故。”

68)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22年 9月 12日.

“孟子不曰：‘有若似孔子’，而曰：‘似聖人。’則其言行氣像，雖不敢比倫於夫子，而其不遠於聖域，則何如其較著也？乃司馬氏，以傳會不經之說，臆斷以‘貌肖孔子’，致使咸淳間一祭酒，進子張而絀有子。”

것인가? 맹자가 말한 天民을 지목한 것이라면 자순의 견해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을 듯하고, 공자가 말한 逸民을 지목한 것이라면 노중련의 고상함이 오히려 그런 지위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겠는가?”<sup>69)</sup>라고 말하며 노중련에 대한 평가에 의구심을 가졌다.

『춘신군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선본에서 사군이라 일컬어진 인물들의 열전을 모두 수록하였기에 그 빈도수가 높은 글이다. 반면 정조는 “그 당시엔 사군의 명성이 한 세상을 뒤흔들었는데, 나머지 세 군은 몸을 굽혀 선비에게 낮추는 훌륭한 점이 많았고, 또 후영, 馮驩, 毛遂의 무리가 옆에서 진언하는 기발한 말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영웅들이었다. 춘신군은 주영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말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세 군과 더불어 같이 이름을 날린 것은 어째서인가?”<sup>70)</sup>라고 말하며 춘신군이 사군 중 한명으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해 대답한 儒學 李英紹 역시 정조의 의문에 동조하며 춘신군이 “사군의 이름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선비들의 칭찬을 헛되이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정조는 문장이 뛰어나더라도 해당 열전의 인물이 도를 해치는 배척해야 마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록하지 않았으며,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사마천의 관점과 후대 문인들의 평가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고 당시 문인들과 함께 면밀하게 재평가하면서 선별하여 『사기영선』을 편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기영선』의 선별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천의 『사기』 저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항우본기」, 「백이전」, 「신릉군전」, 「화식전」, 「태사공자서」 등 5편이 이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수록 편수 중 약 19%에 해당한다.

69) 『弘齋全書』卷110, 經史講義 47 綱目 1.

“子順以魯仲連爲高士之次。其意抑以何等人當高士之目耶。若指孟子所言天民。則恐子順之見不能到此也。若指孔子所謂逸民。則仲連之高。猶未能到得此箇地位否。”

70) 『弘齋全書』卷110, 經史講義 47 綱目 1.

“當是時。四君者名傾一世。彼三君之輕身下士。有足多矣。又有侯嬴, 馮驩, 毛遂之徒。左右吐奇。言無不從。則固一世之雄也。春申則有一朱英亦不用。而乃與三君齊名何也。”

둘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면서, 정조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유후세가」, 「오자서전」, 「소진전」, 「맹상군전」, 「평원군전」, 「범수전」, 「악의전」, 「굴원전」, 「장이진여전」, 「회음후전」, 「원앙전」, 「오왕비전」, 「급암전」, 「이장군전」, 「자객전」, 「유협전」, 「골계전」 등 약 65%에 해당하는 17편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셋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은 아니지만, 정조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소상국세가」, 「관중안영전」, 「역생육고전」, 「위기후무안후관부전」 등 4편이 수록되었다.

넷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더라도, 정조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은 미수록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글은 「노자한비전」, 「중니제자전」, 「노중련추양전」, 「이사전」, 「춘신군전」, 「장의전」 등의 6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기영선』의 선별에는 『사기』를 대상으로 한 여타 선본보다 편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짙게 관여되어 있다. 1차적으로 그 수록 내용의 양이 매우 적은 데다가, 선별에 있어 문장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본’의 본래 성격이 특정한 개인의 기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영선』은 선본의 성격이 극대화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조 개인의 기호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비평관에 의해 선별되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5. 結 論

본 연구의 주제인 『사기영선』은 통독하기에 양이 많은 사마천의 『사기』를 효율적으로 익히기 위해, 핵심이 되는 26편을 선별하여 편찬 및 간행한 정조조 편찬 선본 중 하나이다.

정조의 초록과 요약을 중시하는 학문관과 특정 문인들의 문장을 정문으로 꼽는 문장관, 그리고 그 문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 실행이라는 배경 하에 선본을 편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정조가 서명에 ‘選’이라는 글자를 붙이거나, 10의 배수에 맞추어 글을 뽑아 엮은 문헌인 『八子百選』, 『朱書百選』, 『史記英選』, 『陸奏約選』, 『五經百篇』, 『杜陸千選』 등 6종의 문헌은 정조의 대표적 선본으로, 고문과 주자학, 역사서, 奏議, 경학, 시문학이라는 각 분야의 정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일종의 연속 간행물로서 차례로 간행된 문헌들이다. 『사기영선』은 그 중 사마천의 『사기』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親撰 선본이다.

『사기영선』의 편찬 목적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문장 작법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만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문인들이 편리하게 문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문풍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를 선본 대상 텍스트로 선정된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담긴 문장의 유려함만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정조가 『사기』의 『춘추』 계승을 인정하고, 그 편찬 방식이 『춘추』에서 기인하였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사기영선』이 선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선별이 다른 『사기』 선본의 선별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사기영선』에 수록된 26편을 분석하여 『사기영선』의 선별 기준을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천의 『사기』 저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글을 수록하였다. 둘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면서, 정조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셋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은 아니지만, 정조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보편적으로 문장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글이더라도, 정조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은 미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사기영선』의 편찬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장의 법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정조의 정치관과 주관적인 관점, 그리고 주자성리학을 존송하는 정조의 학문관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사기영선』은 편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짙게 관여된 선본으로, 정조 개인의 기호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비평관에 의해 선별되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상으로 『사기영선』의 편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처럼 『사기영선』은 단순히 정조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선별한 26편의 문장일 뿐만이 아니라, 정조의 학문관과 정치관이 집약되어 선본의 성격이 극대화된 어정서이자, 조선조에 『사기』를 대상으로 간행된 문헌 중 가장 널리 읽힌 주요 선본이기도 하다.

『사기영선』이 조선조 『사기』 선본 중 가장 널리 읽혀진 선본이라는 점이나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편찬된 문헌이라는 점,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간행된 중요한 문헌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 심층적인 논의나 문헌 내적인 분석은 다소 미약하다. 본 연구는 『사기영선』의 수록 내용을 다른 『사기』 대상 선본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상의 담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群書標記』(영인). 學文閣, 1970.

『奎章總目』.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B17B-0018.

『奎章閣圖書韓國本目錄』(영인). 서울대학교도서관, 198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영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史記英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B02CB-0005.

### 2. 단행본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서울: 문헌과해석사, 2000.

김원중 편역. 『사기본기』. 서울: 민음사, 2010.

- 박완식 편역. 『한문 문체의 이해』.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 박현모. 『정치가 정조』. 서울: 푸른역사, 2001.
- 이성규 편역. 『사마천 사기: 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정옥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서울: 일조각, 1988.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사, 2012.

### 3. 연구논저

- 강혜선. “정조가 가려 뽑은 『史記英選』.” 『문헌과해석』 5(태학사, 1998).
-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究』 56(동양고전학회, 2014).
- 김소희. “『史記英選』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40(한국서지학회, 2012).
- 김유리. “傳文學의 形態의 考察: 列傳·假傳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0.
- 류화선. “정조대 문체반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 심지희. “정조의 『어정육주약선』 편찬 의도와 그 배경.” 『동양한문학연구』 38(동양한문학회, 2014).
- 안대회. “朝鮮時代 文章觀과 文章選集.” 『정신문화연구』 20(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 안세현. “문체반정을 둘러싼 글쓰기와 문체논쟁 - 정조의 문장의식을 통해 본 박지원과 이육의 글쓰기 태도 및 문체.” 『어문논집』 54(민족어문학회, 2006).
- 양중석. “《史記·貨殖列傳》의 창작목적.” 『中國文學』 83(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 양중석. “『漢書』의 『史記』 變容 樣相을 통해 본 史官의 글쓰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윤재민. “문체반정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 21(한국고전학회, 2002).

-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진단학회, 1992).
- 이승신. “《史記》 列傳 人物形象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 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 이한조. “伯夷와 司馬遷: 史記總序로서의 伯夷列傳.” 『대동문화연구』 제8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209-237.
-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 정효민. “사기의 문학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 최성엽. “정조의 문장관에 대한 재고.” 『동방한문학』 59(동방한문학회, 2014).
- 한재환. “司馬遷의 士 觀念과 立言意識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 4. 웹자료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http://terms.naver.com>>.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동양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